

## 존재 위의 삶

- Abraham Joshua Heschel의 인간 이해에 대한 비판적 재조명

이인수 (한국침례신학대학 박사과정)  
김기현 (한국침례신학대학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존재 아래의 삶
  - 1. 특수화된 인간
  - 2. 존재 상승 욕구
  - 3. 행위 중심 해석의 한계와 가능성
- III. '존재 위의 삶'의 기초: 존재의 출발점
  - 1. '삶 탐구'는 '무엇'이 아닌 '누가'의 문제에서 시작됨
  - 2. 관계 내적 존재의 전이적(轉移的) 특성
  - 3. 성서적 사고
- IV. '존재 위의 삶'의 구조: 구성적 요소
  - 1. 궁극적 주체이신 하나님
  - 2. '하나'의 의미
  - 3. 전이적 관심
- V. '존재 위의 삶'의 실천과 윤리: 실천적 양식
  - 1. 옮겨지는 관계로서의 응답
  - 2. 유대 종교의 생활 방식
  - 3. 삶 탐구의 우선성
- VI. 나가는 말

---

• ABSTRACT •

---

## Life Beyond Being: A Critical Reconsideration of Abraham Joshua Heschel's Understanding of the Human Person

Ph.D. Student, Lee, Insu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Seminary)  
Prof., Kim, Kihyu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Seminary)

This paper reinterprets Abraham Joshua Heschel's understanding of the human being through the hermeneutical framework of "life beyond being." While previous studies tend to reduce Heschel to a practitioner-oriented ethical thinker, this study critically argues that his anthropology is grounded in an ontological structure that precedes practice. "Life beyond being" understands the human not as a static substance (being), but as engaged in relational and responsive living, constituting existence through responding to the call of God and the other. The foundation of this responsiveness lies in the concept of divine pathos, whereby God deeply engages with human history and suffering. This pathos reflects God's living concern for humanity, and human existence is fulfilled through responding to this divine appeal. This process is concretized in what Heschel calls transitive concern—a living flow of response that occurs between God and humans, and between human beings themselves. Heschel's thought does not dichotomize practice and being, but rather integrates practice as the expression of being. Based on this perspective, the paper seeks to reestablish the discourse of Christian social ethics on an ontological foundation, suggesting a new structure of theological ethics grounded in the existential categories of relation, response, and responsibility.

**Key words:** Abraham Joshua Heschel, Life beyond Being, Christian Social Ethics, Relational Being, Transitive Concern, Divine Pathos

---

## I. 들어가는 말

이 논문의 목적은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Abraham Joshua Heschel, 1907-1972)의 인간 이해를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해석적 틀을 통해 철학적으로 재조명하는 데 있다. ‘존재 위의 삶’은 인간을 고정된 실체로 간주하는 전통적 존재론을 비판하고, 인간을 관계 속에서 응답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파악한다. 이 개념은 존재가 삶에 의해 형성된다는 관점에 근거하며, 관계적 요청과 응답을 통해 인간됨이 드러난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헤셸의 신학과 철학 전반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이다.<sup>1)</sup>

현재 국내 신학계에서 헤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2025년 4월 1일 기준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는 학위논문 6편과 학술논문 3편이 검색되며, 주로 안식일의 영성, 예언자적 시민성, 종교 간 대화와 같은 실천적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존재론적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으며, ‘존재 위의 삶’을 핵심 개념으로 삼은 연구는 사실상 전무하다. 같은 유대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나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등에 비해, 그의 철학적 사상에 대한 연구의 편중은 분명하며, 이는 곧 그의 사상이 실천적 결과물로 소비되는 데 익숙한 국내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단순한 연구 경향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적 사유를 뒷받침하는 존재론적 기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sup>2)</sup>

- 
- 1) ‘존재 위의 삶(a life beyond being)’은 존재의 위계적 높낮이를 뜻하지 않으며, 단순한 존재 상태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초월적 삶을 가리킨다. 이는 ‘존재 아래의 삶(a life beneath being)’과 대조적으로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이다.
  - 2)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2025년 4월 1일 기준), 국내 학위논문은 총 6편으로 확인되며, 주로 안식일 윤리, 예언자적 시민성, 신인 협력, 인격적 구원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중 존재론적 인간 이해를

한편 국내에서 헤셸의 사상은 주로 『안식』(*The Sabbath*)을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이는 그의 신학과 철학을 대표하는 유일한 저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어 온 경향이 있다.<sup>3)</sup> 『안식』은 분명 그의 사유가 응축된 상징적 저작이지만, 이 저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그의 철학적 인간 이해와 존재론적 성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헤셸은 *Who Is Man?, Man Is Not Alone, God*

---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인수의 “Abraham Joshua Heschel의 ‘존재 위의 삶’ 이해 - Glen Stassen의 성육신적 제자도 삶의 관점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가 유일하다. 본 논문은 이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Heschel의 사상을 존재론적 인간 이해의 틀에서 조명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Glen Stassen의 제자도 신학에의 적용에 국한하지 않고, Heschel의 핵심 개념인 ‘존재 위의 삶’을 구조화하고 이를 사회윤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신학적 담론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와 차별성을 지닌다. 한편, 관련 학술논문은 총 3편으로, 주로 안식의 영성, 종교 간 연대, 예언자적 체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존재를 관계적 구조로 이해하려는 일부 국내 논의는 본 논문의 ‘존재 위의 삶’이라는 관점과 철학적 맥락에서 상통한다. 예컨대, 박우영은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을 통해 인간 존재를 근원적 존재와의 만남 속에서 구성되는 실존적 관계로 파악하며, 이를 억압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도덕적 관계성의 창출이라는 저항적 실천으로 제시한다. 조영호 역시 포스트휴머니즘의 조건 속에서 인간다움의 본질을 ‘존재, 사랑, 관계’라는 개념을 통해 재정의하고, 기술 중심의 인간상에 맞선 윤리적 성찰을 관계적 존재 이해 위에서 전개한다. 이들 논의는 모두 인간 존재를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드러나는 실존적 구조로 사유하며,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이 전개하는 존재론적 관계 이해와 이론적 연속성을 지닌다. 박우영, “종교적 영성과 법의 실천적 의미와의 관계성 연구: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과 정의의 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2014): 257-286; 조영호, “포스트 휴먼의 기독교 윤리적 함의,”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2015): 317-348.

- 3) Abraham Joshua Heschel,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51). 『안식(*The Sabbath*)』은 유대교 전통의 안식일을 단순한 규율이나 실천의 틀로 한정하지 않고, 시간과 존재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탐색하는 철학적 저작이다. 헤셸은 안식일을 ‘시간 속의 성소’로 정의하며, 공간 지배에 치중한 현대 문명이 시간의 깊이를 상실했다고 비판한다. 인간의 참된 존재는 소유나 축적이 아니라, ‘시간의 성화를 통해 실현되며, 안식은 그 절정에서 영원히 접속하는 ‘궁전’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사유는 안식을 단순한 회복이나 기능적 효율의 도구로 이해하는 실용주의적 독해를 거부한다. 나아가 시간은 영원을 직관할 수 있는 실존적 계기로 기능하며, 인간 존재는 그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in Search of Man, The Prophets* 등 여러 저작을 통해 인간 존재와 하나님  
의 관계, 윤리적 실천의 기초를 철학적·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왔다. 따라서 『안식』(*The Sabbath*)의 풍성한 의미 역시 이러한 철학적 구  
조를 전제할 때 더욱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존 해석들에 대한 비판적 독해에서 출발한다. 예  
컨대 권순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지만, 이는 형상을 선형적으로 전제함으로써 존재  
를 이상 실현의 대상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지닌다.<sup>5)</sup> 에드워드 캐플란  
(Edward K. Kaplan)은 헤셸의 예언자적 실천과 윤리적 행위를 풍부하게  
조명하지만, 그 실천을 가능케 한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sup>6)</sup>

또한 수잔나 헤셸(Susannah Heschel) 역시 헤셸과 마틴 루터 킹 주니  
어(Martin Luther King, Jr.)의 신학적 공명과 정치적 실천의 공통 기반을  
풍부하게 조명하지만, 이 실천을 가능케 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에 대한  
철학적 분석은 부재하다. 그녀는 아모스 5:24를 비롯한 예언자 전통의 구  
절들이 두 인물의 행위에 어떤 신학적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탁월하게 분  
석하지만, 그 메시지를 수신하고 응답하는 인간 존재의 구조, 곧 하나님  
의 파토스(Divine Pathos)에 반응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해석은 생

4) Abraham Joshua Heschel, *Who Is Ma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Abraham Joshua Heschel, *Man is Not Alone: A Philosophy of Religion*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1); Abraham Joshua Heschel, *God in Search of Man*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wrica, 1955); Abraham Joshua Heschel,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2).

5) 권순구, “‘사람됨’(being human)과 ‘바로 삶’(right living): 인간존재의 의미와 도덕실천의 의무,” 『신학과 목회』 24(2005), 139-165.

6) Edward K. Kaplan, “The American Mission of Abraham Joshua Heschel,” in *The Americanization of the Jews*, eds. Robert M. Seltzer and Norman J. Cohen (New York: NYU Press, 1995), 355-374.

략한다.<sup>7)</sup> 따라서 본 논문은 수잔나 헤셸의 해석을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실천의 상징성과 감동을 철학적으로 구조화하여 ‘존재 위의 삶’이라는 틀로 보완하고자 하며, 이는 기존 해석의 기여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방향의 건설적 비판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해석적 결락을 보완하면서도 기존 연구의 기여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비판의 태도를 견지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헤셸의 철학을 ‘존재 위의 삶’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조화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한다. 첫째, 전통적 존재론에 기반한 인간 이해를 ‘존재 아래의 삶’이라는 개념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한다(1장). 둘째, 헤셸의 관계론적 존재 이해와 성서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 위의 삶’의 철학적 기초를 정립한다(2장). 셋째, 이러한 존재 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실존적 감각, 하나됨, 전이적 관심이라는 구조를 통해 분석한다(3장). 넷째, 이 존재 구조가 어떻게 윤리적 실천과 삶의 양식으로 확장되는지를 유대 종교의 생활 방식과 기독교 윤리학의 대안을 통해 구체화한다(4장). 이를 통해 헤셸의 인간 이해가 단지 윤리적 실천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론이라는 신학적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Who Is Man?*와 *Man Is Not Alone*을 중심 텍스트로 삼는다. 이 두 저작은 헤셸의 인간 이해와 존재론적 사유의 깊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저술로, 실천과 윤리를 존재론적 토대 위에 세우려는 그의 지향이 밀도 있게 담겨 있다.<sup>8)</sup>

7) Susannah Heschel, “Theological Affinities in the Writings of Abraham Joshua Heschel and Martin Luther King, Jr.,” in *Black Zion: African-American Religious Encounters with Judaism*, eds. Yvonne Chireau and Nathaniel Deuts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68-186.

8) 헤셸의 철학은 『사람을 찾는 하느님』(*God in Search of Man*)에서 유대교 전통과 실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전개되지만, 본 논문은 그의 사상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 II. 존재 아래의 삶

이 장은 인간을 정태적 실체로 고정하려는 사고를 비판하며, 존재 중심의 인간 이해가 지닌 문제를 조명한다. 먼저 인간을 객체화하는 시도를 ‘특수화된 인간’으로 분석하고, 이상적 형상에 대한 강박을 ‘존재 상승 욕구’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윤리를 실천 중심으로만 해석할 때 드러나는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관계적 인간 이해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한다.

### 1. 특수화된 인간

인간 존재를 ‘궁극적인 실체’로 선취하여 정의하려는 시도는, 헤셸의 표현을 빌리자면 “존재를 궁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은 논점 선취(Petito Principii)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에 직면한다.<sup>9)</sup> 이는 곧 인간을 존재의 전제로 환원하는 방식이며, 본 논문이 ‘존재 아래의 삶’이라 명명하는 전통적 인간 이해의 핵심 한계다.<sup>10)</sup> 이러한 오류는 인간을 정태적인 본질로 고정시키고, 삶과 관계 속에서 응답하는 존재로서의 역동성을 제거한다.

헤셸은 이러한 전통적 인간 이해가 ‘정당한 인식(Appreciate)’과 ‘조작(Manipulate)’이라는 두 태도 사이의 구분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기초 작업으로서, *Who Is Man?*(『누가 사람이나?』)와 *Man Is Not Alone*(『사람은 혼자  
가 아니다』)에 집중했다. 이는 그의 존재론적·관계론적 인간 이해를 가장 명확히 드러  
내는 중심 텍스트라는 점에서 선택한 것이다. 연구자는 이 세 저작(*Who Is Man?*,  
*Man Is Not Alone*, *God in Search of Man*)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할 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고 영향을 준 『예언자들』과 『안식』에 담긴 헤셸의 사상과 영성이 더욱 온전하  
게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9) Heschel, *Who Is Man?* 69.

10) 헤셸의 존재로의 환원은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콘스탄틴주의에 대한 비판과 궤를 같이  
한다. 다음을 보라. 김기현, “탈콘스탄틴주의로서 아나뱃티즘: 유아세례, 폭력,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제50집(2021), 83-110.

본다. 정당한 인식은 자기 존재와 세계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이며, 세계를 그 자체의 가치로 응시하는 자세다. 반면 조작은 존재와 사물을 효용성과 기능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조작 대상으로 환원시킨다. 이때 ‘자신을 받아들인다’라는 행위는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자기 둘레에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할 사물로 이해’함으로써 정당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포함한다. 그러나 조작의 태도는 이러한 받아들임을 왜곡한다. 세계를 다루지 못하는 경험은 본래 책임과 수용의 자리이어야 하지만, 조작의 논리는 단지 실패와 한계로 간주하며 ‘체념하라’는 식의 반응으로 몰아간다.<sup>11)</sup> 이로써 존재는 자기 회복의 계기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자기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 결과, 존재 아래의 삶은 인간의 자기 인식을 쓸모와 소유의 논리에 따라 형성되게 한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타자와의 관계나 응답의 주체로 이해하지 않고, 효용성과 성과의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를 객관화한다. 헤셀은 “우리는 세계의 표면에 있는 쓸모 있는 것들을 조작한다”라고 지적하는데, 여기서 쓸모는 자기 소유에서 비롯된다.<sup>12)</sup> 이는 결국 소유가 존재를 지탱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며, 존재는 자기 확립이 아니라 기능성과 통제 가능성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존재 이해는 인간 존재의 척도를 도구적 유용성과 개념적 환원성에 두게 되며, 이는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파토스가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보는 헤셀의 사유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 2. 존재 상승 욕구

권순구는 헤셀의 인간 이해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규정

11) Heschel, *Who Is Man?* 81-83.

12) 위의 책 88-91.

하고, 이를 ‘바로 삶’이라는 윤리적 실천 개념과 연결한다. 이러한 해석은 윤리적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지만, 인간 존재를 선형적으로 규정된 형상의 실현 과정으로 전제함으로써 중요한 한계를 드러낸다.<sup>13)</sup> 특히 그는 ‘존재로서의 사람됨’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는 구조를 암묵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존재를 추구해야 할 이상으로 선취하는 형식이다. 이와 같은 구도는 본 논문이 ‘존재 아래의 삶’이라 명명하는 인간 이해의 전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헤셀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은 관념화되거나 규범화될 수 있는 본질적 정의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형상을 닮기 위한 이상이 아니라, 삶과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살아 있는 요청이며, 타자와의 응답적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실존의 자리다. 다시 말해, 형상은 추상적 본질이 아니라 실존적 응답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현실이며, 이를 선형적으로 전제하는 순간 인간 존재는 이미 닫힌 개념 속에 갇힌다.<sup>14)</sup> 이런 구조는 인간이 자기 존재를 본질적으로 ‘선형적으로 규정된 형상을 실현해야 할 어떤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며, 삶은 스스로를 이상에 맞춰 끌어 올리는 방향, 곧 ‘존재 상승의 욕구’로 기울게 된다.

결국 권순구의 해석은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그 윤리가 기반하고 있는 존재 이해의 구조를 충분히 성찰하지 못한다. 실천은 이미 주어진 형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존재는 규범에 의해 정초된 실체로 환원된다. 이러한 방식은 인간을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정의된 틀 안에서 수행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게 만들며, 이는 헤셀이 비판한 조작적 인간 이해와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비판

13) 권순구, “‘사람됨’(being human)과 ‘바로 삶’(right living): 인간존재의 의미와 도덕실천의 의무,” 154.

14) Heschel, *Who Is Man?* 103.

적으로 검토하며, 인간을 선형적 형상이 아닌 요청과 응답 속에서 존재하는 관계적 실존으로 이해하려는 ‘존재 위의 삶’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 3. 행위 중심 해석의 한계와 가능성

캐플란은 헤셸의 삶과 사상을 미국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풍부하게 분석한다. 그는 특히 헤셸이 예언자적 윤리를 바탕으로 민권운동, 반전운동, 종교 간 대화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조명하며, 헤셸을 ‘1960년대의 예언자로 평가한다. 이러한 해석은 헤셸의 윤리적 실천이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깊은 신학적 선언임을 보여주는 데에 기여한다.<sup>15)</sup> 그는 “유대인의 에너지원은 크고 화려한 회당이나 공동체 센터, 자금,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는 헤셸의 발언을 인용하며, 유대인의 윤리적 실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용은 헤셸의 실천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 나아가 그의 인간 존재 이해가 어떠한 구조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sup>16)</sup>

이는 캐플란의 해석이 윤리적 긴장과 신앙의 응답이라는 테마를 강하게 부각하면서도, 그 실천의 철학적 또는 존재론적 기초에 대해서는 상대

15) Kaplan, “The American Mission of Abraham Joshua Heschel,” 365.

16) 위의 논문 364. 본 논문은 캐플란의 전체 저작을 평가하기보다는, “The American Mission of Abraham Joshua Heschel”에서 드러나는 특정 해석의 경향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판하고자 한다. 이는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캐플란의 서술이 헤셸의 존재론적 인간 이해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며, 부분 비판의 정당한 학문적 시도로 간주된다. 나아가 본 논문이 제안하는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해석들은 캐플란의 분석을 반박하기보다는, 그가 도달하지 못한 존재론적 층위를 보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의 연구를 철학적으로 확장하고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캐플란의 학문적 기여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해석적 결락을 지적하고 균형 잡힌 비판을 시도하는 연구자적 책임의 태도를 견지하고자 한다.

적으로 침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그는 헤셀이 홀로코스트(Shoah) 이후 유대인의 피해자적 정체성을 거부하며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 국가에 의해 재정화된 유대교에 대한 도전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하지만, 그 대안이 어떤 인간 이해 위에 세워졌는지는 구체화하지 않는다.<sup>17)</sup> 더 나아가 캐플란은 헤셀이 “내 마음은 메츠비즈에 있고, 내 정신은 코츠크에 있다”라고 고백한 대목을 소개하면서, 이를 윤리적 긴장의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하지만, 존재론적 차원에서 사랑과 두려움, 응답성과 자기 초월의 이중 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지 않는다.<sup>18)</sup>

본 논문이 제안하는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해석틀은 캐플란의 분석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조명한 윤리적 실천의 배후에 자리한 인간 이해를 드러냄으로써 그의 연구를 철학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헤셀에게 있어 인간은 단지 ‘윤리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에 응답하도록 구성된 관계적 존재이며, 바로 그 존재 구조 위에서 삶의 실천과 윤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캐플란의 해석은 헤셀의 실천을 역사적이고 도덕적인 맥락에서 강하게 조명했지만,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한 존재론적 기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보다 철학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결국 캐플란의 연구는 헤셀의 윤리적 선언을 풍성하게 해석함으로써 헤셀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지만, 그 해석이 미처 도달하지 못한

17) 위의 논문 356.

18) 위의 논문 368. 캐플란은 이 인용을 헤셀의 윤리적-영적 긴장을 상징하는 고백으로 제시하지만, 본 논문은 이를 존재론적 인간 이해의 이중 구조—곧 관계적 사랑(Mezbizh)과 책임적 진리(Kotzk) 사이에서 응답하는 인간 존재의 역동성—를 드러내는 상징적 진술로 본다. 캐플란이 인용한 헤셀의 메츠비즈와 코츠크에 관해서는 헤셀의 저작인 *A Passion for Truth*에서 깊이 있게 다룬다. Abraham Joshua Heschel, *A Passion for Tru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73); Abraham Joshua Heschel, *A Passion for Truth*, 이현주 역, 『어둠 속에 갇힌 불꽃』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원, 2008).

차원을 ‘존재 위의 삶’이라는 개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 보완은 캐플란의 분석을 해체하거나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해석을 더 깊은 차원으로 심화시키는 방식의 건설적 비판이 될 수 있다.

한편, 수잔나 헤셀 역시 아버지인 헤셀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사이의 신학적 친연성과 정치적 실천의 공명을 조명하며, 이들의 윤리적 실천이 예언자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이들의 정치적 참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Heilsgeschichte)’ 안에서 이해하며, 실천을 신학적 감수성과 영성의 표현으로 읽어낸다.<sup>19)</sup>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캐플란과 마찬가지로, 그 실천을 가능케 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에 대한 철학적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수잔나 헤셀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인용한 아모스 5:24의 구절이 헤셀의 번역과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운동의 상징성과 신학적 연대를 설명하지만, 그 상징이 ‘하나님의 파토스에 응답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전이적 존재 구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석하지는 않는다. 이는 실천의 역사성과 감동을 풍부하게 전하면서도, 그 실천이 발생하는 존재적 기초에 대한 해석을 생략함으로써, 윤리적 선언이 상징화되는 한계를 드러낸다.<sup>20)</sup>

따라서 본 논문은 캐플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잔나 헤셀의 해석 역시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해석틀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실천에 대한 신학적 감수성을 철학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인간을 하나님의 현존에 응답하는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윤리적 실천을 단순한 도덕 명제가 아닌 존재의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한다.<sup>21)</sup>

19) Susannah Heschel, “Theological Affinities in the Writings of Abraham Joshua Heschel and Martin Luther King, Jr.,” 171-172.

20) 위의 논문 173.

21) 수잔나 헤셀에 대한 본 논문의 비판 역시 전체 저작에 대한 부정이 아닌, 특정 텍스트의 구조와 강조점에 근거한 부분적이고 제한된 분석이다. 그녀의 해석은 예언자적 감수성

### III. '존재 위의 삶'의 기초: 존재의 출발점

'존재 위의 삶'은 헤셀이 직접 사용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의 인간 이해를 관계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개념이다. 이는 전통적 존재론에 기반한 '존재 아래의 삶'과 대비되며, 인간을 응답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보는 새로운 해석의 틀을 제시한다.

#### 1. '삶 탐구'는 '무엇'이 아닌 '누가'의 문제에서 시작됨

헤셀의 사람 이해는 특정한 표상(表象)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 자체의 술어로 사람을 생각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특수한 현상에 천착하여 그 본질을 확보하지 않으며, 사람 자체로서의 술어로 먼저 사유하고 사람 전체를 보는 관점이다. 즉 사람의 술어란, 외부에서 투사하는 단독적인 주입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의미인지와 더불어 스스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함으로써 파악하는 것이다. 즉 관계 안에서 삶을 경험하며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자기 이해다.<sup>22)</sup>

사람됨의 의미는 자신의 존재에 매몰된 실체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서 형성된다. 즉 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존재로서 의미를 추구한다. 헤셀은 전통적 존재론의 고정된 자아 이해를 배격하고, 성서적 관계론에 기반해 인간을 타자와의 응답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로 본다. 존재론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을 조각(최상위 모델로서의 무엇 만들기)하거나 도구화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

---

과 종교 간 연대의 신학적 의의를 풍부하게 조명하지만, 실천을 가능케 한 존재론적 인간 이해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간과된다. 이에 본 논문은 그녀의 해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해석틀을 제시하려 하며, 이는 그녀의 기여를 폄하하기보다는 철학적으로 확장하고 심화하려는 건설적 비판의 시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22) Heschel, *Who Is Man?* 3.

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는 존재의 규명보다 삶의 관계성을 우선시하는 ‘존재 위의 삶’의 관점이다.

이렇게 ‘존재 위의 삶’은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응답하고 더불어 사람의 존재를 만드신 분과의 관계 안에서 응답하는 삶의 총체와 맞닿아 있다. 헤셀은 이를 “영원한 아멘(an eternal Amen)”의 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다.<sup>23)</sup> 이러한 관점은 인간 존재의 탐구가 ‘무엇이냐’라는 본질적 질문이 아니라, ‘누구냐’라는 관계적 질문에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헤셀이 *The Sabbath* (『안식』)에서 말하듯, 존재를 공간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열리는 관계의 구조로 이해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시간은 존재의 핵심이다(Time is the heart of existence)”라는 그의 말은, 인간의 자기 이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의 응답과 책임 안에서 형성되는 삶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존재 위의 삶’은 누구이며, 어떻게 응답하며, 어떤 삶으로 시간 속을 살아가는가를 묻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sup>24)</sup> 그렇다면 ‘존재 위의 삶’이라는 술어가 지닌 관계 내적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 2. 관계 내적 존재의 전이적(轉移的) 특성

헤셀의 사람 이해는 관계 내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은 관계적이면서 동시에 전이적이다.<sup>25)</sup> 달리 말해서 존재의 양태가 삶이며, 삶의 형성은 타인을 향한 전이적인 관심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는 삶을 단순히 대상화된 실체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존재는, 삶을 통해 세계와의 능동적 관계

23) 위의 책 52.

24) Heschel, *The Sabbath* 3.

25) Heschel, *Man is Not Alone* 142-143.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고 실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인간은 관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에 응답하면서 존재를 형성해 간다. 사람의 존재 양태가 관계 내적인 삶의 형태로 드러난다고 봐야 한다.

사람에 대한 헤셸의 이해는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에게서 시작한다. 이는 존재가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당위가 존재에 선행한다”라는 의미다.<sup>26)</sup> 달리 말해서 존재 위의 삶이라는 술어의 측면에서 보면 삶의 형성을 궁극적으로 두고, 자기 존재의 양태를 관계 형성이라는 중대한 요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꾸려간다. 즉 관계 내적이란 표현은 존재에 대한 술어이고, 존재의 전이성이라는 표현은 의미(또는 가치)에 대한 술어다.

### 3. 성서적 사고

헤셸의 삶에 대한 이해는 성서적 사유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 유대교 랍비로서 그는 히브리 성서를 해석의 중심에 놓으며,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간의 존재론적 관계를 사유의 근본적인 틀로 설정한다.<sup>27)</sup> 인간이 궁극적 실재와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탐색할 때, 존재를 ‘궁극적 존재’로서의 장(場)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신성한 삶’이 펼쳐지는 장

26) Heschel, *Who Is Man?* 97. 여기서 ‘당위’는 규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관계적 요청성의 의미로 한정한다. 실존주의나 칸트 윤리학의 당위 개념과는 구분한다.

27) 헤셸이 유대인 랍비로서 히브리 성서를 중심에 두고 사고한다는 점은, *Who Is Man?* (『누가 사람이냐』)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연구자의 의도는 그의 저술 순서를 의도적으로 역순으로 파악해 나가면서 그의 사고가 ‘하나님의 정념’(Divine Pathos, 이 논문에서는 ‘하나님의 파토스’로 표기한다.) 개념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예언자들』(*The Prophets*)에 기초하고 있다고 봤다. 『예언자들』은 1962년도 저작이지만 그 사상적 토대가 이미 자신의 1936년 박사학위 논문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저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50-60년대에는 이미 그의 사상 속에 ‘성서의 권위 문제’, ‘예언자들의 삶의 실제’, ‘하나님의 파토스’ 등의 주요 사상이 히브리 성서를 중심으로 내재하고, 발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場)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헤셀은 존재를 독립적 실체로서 사유하기보다는, 삶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실존적·경험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헤셀의 삶 이해를 ‘중대한 요구에 대한 응답의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서술은 책임을 지는 존재로 점철된다. 즉 책임의 의미는 단순히 응답하는 행위를 넘어,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요구)를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강조된다. 즉, 헤셀이 이해하는 삶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계약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관계적 실존의 형태를 지닌다.

헤셀에게 있어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적·협동적 관계는 성서적 사유의 본질적 요소다. 헤셀은 존재의 신비를 강조하는 그리스적 사고를 모방하거나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서적 사유를 통해 신비 그 자체를 넘어서 존재하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유는 신비를 초월한 의미가 인간의 언어로 담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즉 삶의 문제란 사람이 더불어 맺는 모든 것과 화해의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28)</sup> 따라서 존재를 신비에 머무르게 하는 존재론적 이해는 사람의 길을 모색할 때 다루고, 통제하고, 활용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설정한다. 그러나 헤셀은 삶의 의미를 화해의 과정 속에서 자기 언어로 발견하려는 관계론적 방식을 우선시한다.

보다 분명히 말하자면, 존재론적 자기 형성은 지식 축적을 지향하는 반면, 관계론적 자기 형성은 경의의 태도로 사람됨을 빚어가는 방식이다. 관계적 존재로서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객체화하거나, 인간을 도구화·상품화하려는 모든 시도와는 본질적으로 상반된다. 이러한 대상

28) Heschel, *Who Is Man?* 76-77, 98-99.

화는 헤셀이 말한 삶의 신비와 책임의 질서를 해체하는 폭력이다. 따라서 헤셀의 존재 이해는 단순한 사변을 넘어, 실천의 장으로 확장되는 관계적 사유로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 IV. '존재 위의 삶'의 구조: 구성적 요소

'존재 위의 삶'은 단순한 실존적 느낌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실질적인 삶의 구조를 의미한다. 그 구조는 곧 사람됨의 감각, 공동체적 의미, 전이적 관심으로 구체화하며 이는 헤셀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세 가지 요소와 긴밀히 연계된다.

##### 1. 궁극적 주체이신 하나님

헤셀은 인간과 삶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고 본다.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전이적 관심에서 비롯되며, 이 현존을 감각하는 사람의 태도 속에서 사람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 불가능성'은 단순한 한계가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 술어다. 삶의 현실을 통해 감각하는 하나님의 현존은 곧 하나님을 향한 '외경심'이며, 이는 단순한 경외가 아닌 존재의 신비 앞에 선 삶의 태도이다.

만약 하나님 없이 자기 존재를 탐구한다면, 인간은 자기중심적 성찰에 갇히게 되며, 그 과정에서 관계적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헤셀에게 창조적으로 사는 삶이란, 세계를 도구적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위대한 우의(Great Fellowship)"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삶을 의미한다.<sup>29)</sup> 즉 나와 세계라는 피조물의 하나님이 궁극적 주체다.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헤셀의 사유는, 하나님을 궁극적 주체로, 사

29) Heschel, *Man is Not Alone* 39.

랍과 세계를 그 대상(객체)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념’ 개념이 도출된다는 점이다.<sup>30)</sup> 즉 세계 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유에 의해 이해되며, 사람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념에 기초한 초월적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실존으로 나타난다.

## 2. ‘하나’의 의미

헤겔은 하나님을 존재론적 완전성의 상징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관점이 성서적 사유가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고정할 경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은 오히려 약화된다고 본다. 그는 존재론적 관점에서 ‘일원성(一元性)’의 개념을 지지할 경우, 선과 악의 다원적 현실과 충돌이 발생한다고 보며, 반대로 가치론적 관점에서 ‘다원성(多元性)’을 지지할 경우, 자연 질서의 통일성을 간과하게 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결국 이 두 관점은 서로 충돌하며, 어느 한 편에 치우칠 경우 진리의 일부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비판의 핵심이다.<sup>31)</sup>

따라서 이러한 존재론적 일원성과 가치론적 다원성의 충돌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헤겔은 이 양자의 긴장을 단순히 개념적으로 조율하려 하기보다, ‘삶’이라는 역사적 장(場) 속에서 통합적 의미를 모색하며, 참된 ‘하나’의 의미를 역설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이 ‘하나’는 단지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분 하나님’을 지시

30) 위의 책 64-65.

31) 위의 책 105-106. 헤겔은 다신론이 일원의 초월성을 보지 못하고, 일원론이 세계의 불일치와 다양함을 간과한다고 비판하며, 삶은 일관된 환상이 아니라 복잡하고 격렬한 선택의 연속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으로 다수와 다자를 하나 또는 일자에 환원하는 제국주의적 환원주의를 피하면서도 다수와 다자가 상대주의로 빠지지 않는 신학적 입장을 김기현은 반기초주의(nonfoundationalism)라고 한다. 다음을 보라. 김기현, 『맥클랜던의 반기초주의 신학』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에 의해 구성된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타자성 속에서 역사 전체를 끌어안고 계시는 인격적 주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는 추상적 단일성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실천적 ‘하나됨’의 의미로 전개된다.<sup>32)</sup>

우선 헤셀이 말하는 ‘하나’의 의미는 단순한 수적 단일성을 넘어서는 ‘독특함(Unique)’에 근거한다. 이는 하나님이 여타 존재들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교 불가능하고 유일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곧 표현 불가능한 초월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지시한다. 나아가 ‘하나’라는 개념은 ‘하나됨’의 관계적 의미로 확장되며, 이는 표현 불가능한 신적 실재를 감지하려는 인간의 응답적 태도와, 그 신적 타자가 지닌 유일무이한 성격 사이의 독특한 관계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33)</sup> 이러한 개념적 확장은 헤셀의 사유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인간과 삶을 이해하는 방법론적 틀 안에서 ‘존재 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사유를 전개하는 방식과 긴밀히 연결된다.

또한 ‘하나’라는 개념은 한 분 하나님이 지니신 한결같음(Faithfulness)의 속성을 내포한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동일한(the same)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는 단순한 존재론적 단일성을 넘어서,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역사라는 장(場) 속에서 피조물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

32) *Man Is Not Alone*의 13장 제목은 “One God”(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분 하나님의 의미는 ‘모든 것은 하나이다’라거나, ‘하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피조물인 세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계와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회복 가능성을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타자성’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헤셀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다.

33) Heschel, *Man is Not Alone* 116-117. 여기서 ‘하나됨’의 ‘독특함’이라는 속성은 ‘유일한(Only)’ 즉 ‘오로지 하나’라는 의미와도 연계된다. 즉 독특한 관계는 유일한 관계이자, 그분이 이끄시는 관계만이 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신다는 ‘하나됨’의 관계적 의미로 확장된다. 따라서 헤셀이 사유하는 ‘하나’는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형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론적 시각은 선과 악에 대한 그의 다음 진술을 해석하는 토대가 된다: “악이란 곧 분열이고 혼란이며, 인간을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선은 통합이고 함께함이며 연합이다. 선과 악은 마음의 속성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의 관계이다.”<sup>34)</sup>

### 3. 전이적 관심

하나님을 주체로, 인간을 객체로 설정하는 헤셀의 사유는 관계 내적 차원에서의 ‘하나됨’을 중심 개념으로 정립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계성이 선행적 기초를 이루며, 이는 인간의 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존재 위의 삶’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성을 토대로 형성되는 인간의 관계적 실존을 지시한다. 이러한 사유는 생명에 내재된 자성적(自省的, reflexive) 관심에서 출발한다.<sup>35)</sup> 예컨대, 유기체의 생명은 자기 생존을 위한 본능적 관심에서 비롯되며, 선택적으로 외부 물질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보존을 도모한다. 이러한 관계성은 자기를 유지하려는 내적 동인에 기초하며, 미래에 대한 염려를 포함하는 자성적 구조로 이해된다.

그러나 헤셀은 이와 같은 생명의 자성적 관계 구조를 인간 존재와 삶의 차원에서 단순히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가 주목하는 핵심은, 인간의 관계가 자기 중심적 관심을 넘어, 궁극적으로 타인을 위한 관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헤셀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34) 위의 책 118-120. 연구자 번역.

35) Heschel, *Man is Not Alone* 137.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한 본능적 관심인 자성적 관계[관심](reflexive concern)에 덧붙여 남들에 대하여 갖는, ‘옮겨지는 관계[관심]’(transitive concern)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남들의 고통을 목격한다든가 사랑에 빠진다든가 도덕 교육을 받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경험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게 되고 자신의 득실(得失)을 따지는 일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줄 알게 됨으로써 그는 비로소 짐승의 차원에서 인간의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이다.<sup>36)</sup>

헤셸은 사람이 옮겨지는 관계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존재는 궁극적으로 타자에게로 옮겨가는 ‘전이적(轉移的) 관심’ 속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인격적이며 전이적인 실천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비로소 헤셸의 대표작 『예언자들』(*The Prophets*)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파토스를 이해할 수 있다.<sup>37)</sup> 그렇다면, 사람이 옮겨지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본래 자성적 관심을 통해 자기 존재를 유지하며, 자기 염려를

36) Abraham Joshua Heschel, *Man Is Not Alone*, 이현주 역,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166. 이 부분에서 번역과 관련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관심’과 ‘관계’를 혼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파악한 헤셸의 의도는 본능적 관심이 자성적 관심을 말하는 것이며, 남들에게 옮겨지는 관심은 전이적 관심의 측면이다. 따라서 ‘관계’로 번역한 것은 헤셸의 전체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자성적 관심(Concern)과 옮겨지는 관심(Concern)으로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헤셸의 사고는 이후 하나님의 전이적 관심에 기인하여 옮겨지는 관심의 영역인 옮겨지는 관계까지 확장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당 원문을 ‘자성적 관심이 곧 자성적 관계’라는 식으로 번역하면 혼란을 줄 수 있기에 바로 잡는다. *Man Is Not Alone*, 138.

37) Heschel, *The Prophets* 297-298. 헤셸은 하나님의 파토스를 단순한 격정이나 본질적 속성으로 보지 않고, 인격적 관계 속에서 전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로 이해한다. 이는 하나님의 결단에서 비롯된 의도적인 행동이며, 충동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행위다. 헤셸에게 하나님의 파토스는 영원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중심으로 삶을 조직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존재 아래의 삶’의 양상으로, 헤셀이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조작’의 범주에 속한다. 자성적 관심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확립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도구화하며, 결국 활용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경향을 내포한다. 이로 인해 삶은 존재에 종속되며, 존재가 삶에 우선하는 위계가 형성된다. 반면, 헤셀의 존재론적 입장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하나님의 ‘전이적 관심’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존재 아래의 삶’에서 ‘존재위의 삶’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윤리적 변화를 넘어, 자유의 존재론적 재정의의 수반하는 근본적 전환이다. 자성적 관심에 고립된 인간은 자기 보존과 자기 발전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추구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수단화하고, 스스로를 억압하는 체제로 귀결되는 오류를 낳는다. 헤셀에게 있어, 자성적 관심을 통해 자기 변화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본질적으로 자기모순적이며 부조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인간은 ‘하나됨’ 즉, 표현 불가능한 실재에 대한 감각을 경험하며,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무아지경에 이르게 된다.<sup>38)</sup> 헤셀이 말하는 이 무아적 경지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자유나 자율성의 실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전이적 관계 속에서 자유를 경험한다고 보며, 이 자유는 궁극적으로 타인을 ‘전이적 삶’으로 초대하는 윤리적 관계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삶의 구조는 곧 헤셀이 말하는 윤리적 실천의 존재론적 토대를 형성한다.

## V. ‘존재 위의 삶’의 실천과 윤리: 실천적 양식

헤셀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존재 위의 삶’으로 이해하며, 이를 유

38) Heschel, *Man is Not Alone* 142.

다 전통의 생활 방식과 연결한다. 이는 단순한 윤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존재론적 응답이다. 이를 위해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sup>39)</sup>

일반 윤리는 목적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실천의 방향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헤셀은 윤리를 부정하지 않으나, 윤리적 행위만으로는 삶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참된 윤리는 존재의 요청에 응답하는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40)</sup> 따라서 삶과 인간을 사유하려면, 그 실천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 1. 옮겨지는 관계로서의 응답

본 연구자는 인식론적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지만, 실천 가능성에 대한 물음은 결국 인간 실존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로 이어진다고 본다. 이는 헤셀의 사유에서, 인간을 목적화하거나 수단화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시도와 연결된다. 다시 말해, 자신을 목적화하면 타인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한계에 직면하고, 반대로 타인을 절대적 목적으로 삼을 경우 자신을 수단화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은 ‘옮겨지는 관계’의 차원에서 제시된다. 이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할 때조차 자신을 단순한 수단이나 보조적 존재로 이

39) ‘일반 윤리’라고 칭한 이유는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학 사이에 구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김병권의 『침례교 교회윤리학 모색』(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4장에 근거한 것으로 ‘일반 윤리의 탐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초점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 윤리학은 교회 윤리학으로서 교회의 풍토 형성에서 나와서 다시 교회의 형성을 위한 질료가 되는 선순환적인 방식으로 탐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기준에서 일반 윤리가 지닌 한계 중 하나가 존재 중심적 윤리라고 본다.

40) Heschel, *Man is Not Alone* 187.

해하지 않으려는 관계적 저항을 포함한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의 의미는 단지 개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 자체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지 않으려는 인식으로까지 확장된다.<sup>41)</sup>

그러므로 헤셀은 자기 자신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태도, 자신을 수단화하면서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는 태도, 나아가 사회적 유익을 궁극적 가치로 설정하는 태도 모두에 비판적으로 응한다. 이러한 거부는 곧 ‘옮겨지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근본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 관계의 핵심은, 타인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려는 윤리적 시도가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자기 수단화의 긴장을, 자기 부정이라는 실존적 방식으로 감내하는 데 있다.<sup>42)</sup>

## 2. 유다 종교의 생활 방식

자기 부정의 대가를 치르는 옮겨지는 관계는 유다 종교의 토대에서 형성되고 나아가 전개된다. 달리 말해서 옮겨지는 관계로서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헤셀의 유다 종교 이해와 궤를 같이한다.<sup>43)</sup> 이러한 이해는 하나님의 파토스 개념으로 드러난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를 넘어 계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역사 속에 충만히 계심을 뜻한다. 즉 예언자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파토스를 선포하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파토스가 요구하는 것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sup>44)</sup>

41) 위의 책 194-195.

42) 위의 책 138-139.

43) Heschel, *The Prophets* 291-292. 물론 제도로서의 종교를 볼 때,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목적’을 ‘수단’으로 대체시키는 오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유다 종교가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고 봤다.

44) 위의 책 294-296.

이러한 관점에서 헤셀이 말하는 성(聖)과 속(俗)의 이원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유대교 전통의 종교적 삶 또한 이 이원적 구조 속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헤셀은 유대 종교의 삶을 성과 속이 구분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 곧 하나님과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적 삶으로 이해한다. 하나님의 전이적 관심에서 비롯된 이 관계성은 타자, 곧 이웃과의 관계로 확장되며, 계명과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미츠봇(Mitzvot)은 이러한 열린 관계성에 기반하여 수행된다.<sup>45)</sup>

연구자는 이러한 전이적 관심과 관계적 삶의 구조를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하나의 술어로 명명한 것이다. 이는 존재가 삶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파토스와 전이적 관심에서 비롯된 관계적 초대에 응답하는 삶이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며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확장 과정 속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헤셀이 말하는 옮겨지는 관계의 역동성이 작동한다.<sup>46)</sup>

### 3. 삶 탐구의 우선성

헤셀의 존재론은 윤리 이전에 존재의 응답성에 주목한다. 사람은 먼저 요구를 받는 존재이며, 그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윤리적 삶이 가능해진다.

45) Heschel, *Man is Not Alone* 266-269. 미츠바(mitzvah, 복수형: 미츠봇)는 일반적으로 ‘계명’ 혹은 ‘명령’으로 번역되지만, 단순한 법적 명령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길에 동참하는 삶의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헤셀에게 미츠바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실존적 응답이자, 거룩함의 실천이며 존재를 형성하는 영적 질서의 일부로 자리한다. 이는 토라의 명령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 향하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다.

46) 유대식 삶은 계명 중심이 아니라 ‘길’(道)로 이해되어야 한다. 헤셀은 계명 자체나 실천 방식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라는 관계적 언어로 유대 종교를 서술한다. 따라서 법적 성격보다 관계적 차원의 ‘길’을 먼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명이라는 ‘행위’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Man is Not Alone*에서는 계명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없지만, 다른 저작인 *God in Search of Man*에서는 미츠봇의 의미와 상통하는 미츠바의 측면을 유대적 삶의 방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실천의 전개 과정에서 삶 탐구가 존재 탐구에 선행한다. 이와 같은 인간 이해는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Richard H. Niebuhr)의 응답하는 인간(Man the Answerer) 이해와 궤를 같이한다.<sup>47)</sup> 니버는 기존의 목적론적 윤리(Man the Maker)와 의무론적 윤리(Man the Citizen)가 인간을 도구화하거나 획일화하는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한다.<sup>48)</sup> 따라서 니버가 제시한 ‘응답하는 인간’은 자기중심적 주체를 넘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행위하는 새로운 윤리적 주체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49)</sup>

헤셸 역시 선한 행실과 도덕 의무를 ‘하나님의 요구’라는 차원에서 초월적으로 재구성하며, 중첩된 윤리의 오류를 넘어서는다.<sup>50)</sup> 이러한 점에서 헤셸과 니버는 모두 ‘응답’이라는 개념을 통해 윤리적 행위 주체의 새로운 형상을 제시하며, 존재를 삶으로 전환하는 실천의 길을 보여준다.

결국 ‘존재 위의 삶’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관계적 존재로서의 사람됨을 실현하는 삶이며, 이는 계명 중심이나 상황 중심 윤리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독교 윤리학의 대안적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sup>51)</sup> 니버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sup>52)</sup>라는 물음은, 헤셸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주어졌는가?’라는 통찰 속에서 응답 개념의 존재론적 전환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sup>53)</sup>

47) H.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3), 56.

48) 위의 책 49-56. 니버가 지적한 두 가지 모두 사람을 하나의 행위자의 상(像)으로 본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즉 목적론적 윤리의 측면에서 자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이라면 스스로 폐기할 수 있고, 의무론적 윤리의 측면에서 모든 사람을 획일한 기술적 또는 예술적 해석 아래에 포섭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

49) 위의 책 56.

50) Heschel, *Man is Not Alone* 223-224.

51) 김병권, 『침례교 교회윤리학 모색』 73.

52)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67.

53) 국내 연구 중 김희수는 리처드 니버의 ‘응답적 책임윤리’를 공공신학의 실천적 토대로 해석하며, 인간과 교회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임적 존재로 규정한다. 그는 이러한

## VI.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의 인간 이해를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해석적 틀로 구조화함으로써, 그의 철학과 신학을 관계 중심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였다. 논의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전개되었다. 첫째, 전통적 존재론에 기반한 인간 이해를 ‘존재 아래의 삶’으로 비판하며, 본질주의와 이상 실현의 구조가 지닌 한계를 분석하였다(1장). 둘째, 헤셀의 인간 이해가 관계 내적 존재, 곧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삶의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혀, ‘존재 위의 삶’의 기초를 정립하였다(2장). 셋째, 이 관계적 존재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각-하나됨-전이적 관심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폈다(3장). 넷째, 이러한 존재론이 어떻게 실천과 윤리로 확장되는지를 유다 종교의 생활 방식과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4장).

이 해석은 기존의 헤셀 연구들과 일정한 긴장을 형성하면서도, 이를 보완하는 목적을 지닌다. 권순구의 형상 회복 중심 해석은 인간을 이상 실현의 대상으로 환원함으로써 존재론적 긴장을 약화시키며, 캐플란의 윤리 중심 분석은 헤셀의 실천을 풍부하게 조명하면서도 그 실천의 존재론적 구조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적 결락을 비판적으로 보완하며, ‘존재 위의 삶’이라는 개념을 통해 헤셀의 사상을 보다 통합적으로 읽어내려는 시도이다. 수잔나 헤셀의 해석 또한

---

윤리가 상황 해석, 사회적 연대, 공공성의 회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교회의 실천적 책임 수행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기반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을 응답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그 존재가 사회적 책임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존재 위의 삶’이 지닌 의미와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이와 연결하여, 헤셀의 사상이 지닌 관계론적 존재론은 이러한 응답 개념에 철학적 깊이를 부여하며, 삶의 실천을 보다 두텁게 만드는 토대로 기능한다. 김희수, “H. Richard Niebuhr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 『기독교사회윤리』 제34집(2016): 26-31.

아버지의 사상을 현대 사회정의 담론과 연결하며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으나, 이러한 해석 역시 존재론적 기반에 대한 성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캐플란의 입장과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존재 위의 삶’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실천적 해석을 철학적으로 통합하고 구조화하는 해석의 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향후 윤리적 실천을 위한 존재론적 기초에 새로운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기독교 윤리학의 맥락에서, 삶의 양식이 존재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에 응답하는 구조임을 드러냄으로써, 신학적 윤리의 방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다. 니버의 ‘응답하는 인간’ 개념과의 접점 또한 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논의의 지평을 열어준다.

그러나 본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헤셀의 사유 전반을 일정 부분 조망하였으나, 공동체론, 정치신학, 사회정의, 예언자적 영성, 안식일 영성, 종교 간 대화 등 실천적 주제들은 충분히 심화하여 다루지 못했으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해석들의 잠재적 확장 가능성 또한 실천신학, 사회윤리, 교육철학 등과의 교차적 논의로까지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헤셀의 인간 이해를 구조화하고, 그 안에 내재한 존재론적 관계성을 드러냄으로써, 헤셀 사상의 해석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존재 위의 삶’은 단지 하나의 주제적 제목이 아니라, 그의 철학을 해석하는 핵심 구조로 기능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는 이 개념을 토대로 구체적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기현 『맥클랜턴의 반기초주의 신학』.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 김병권 『침례교 교회윤리학 모색』.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 김희수. “H. Richard Niebuhr의 신학과 윤리학의 공공신학적 토대.” 『기독교사회윤리』 34(2016), 19-45.
- 권순구. “‘사람됨’(being human)과 ‘바로 삶’(right living): 인간존재의 의미와 도덕 실천의 의무.” 『신학과 목회』 24(2005), 139-165.
- 박우영. “종교적 영성과 법의 실천적 의미와의 관계성 연구: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과 정의의 실천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257-286.
- 이인수. “Abraham Joshua Heschel의 ‘존재 위의 삶’ 이해 - Glen Stassen의 성육신적 제자도 삶의 관점에서-.” 석사학위논문,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022.
- 조영호. “포스트 휴먼의 기독교 윤리적 함의.”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317-348.
- Heschel, Abraham Joshua. *A Passion for Truth*, 이현주 역. 『어둠 속에 갇힌 불꽃』.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8.
- \_\_\_\_\_. *God in Search of Man*, 이현주 역. 『사람을 찾는 하느님』.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 \_\_\_\_\_. *Man Is Not Alone*, 이현주 역.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 \_\_\_\_\_. *The Sabbath*, 김순현 역. 『안식』. 서울: 복있는사람, 2007.
- \_\_\_\_\_. *The Prophets*, 이현주 역. 『예언자들』. 서울: 삼인, 2004.
- \_\_\_\_\_. *Who Is Man?*, 이현주 역. 『누가 사람이냐』.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2007.
- Niebuhr, H. Richard.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정진홍 역. 『책임적 자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Heschel, Abraham Joshua. *A Passion for Truth*.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73.
- \_\_\_\_\_. *God in Search of Man: A Philosophy of Judaism*.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55.

- \_\_\_\_\_. *Man Is Not Alone: A Philosophy of Religion*.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51.
- \_\_\_\_\_.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1962.
- \_\_\_\_\_.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1951.
- \_\_\_\_\_. *Who Is Ma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 Niebuhr, H. Richard. *The Responsible Self: An Essay in Christian Mor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3.
- Heschel, Susannah. "Theological Affinities in the Writings of Abraham Joshua Heschel and Martin Luther King, Jr." In *Black Zion: African-American Religious Encounters with Judaism*, edited by Yvonne Chireau and Nathaniel Deutsch, 168-18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Kaplan, Edward K. "The American Mission of Abraham Joshua Heschel." In *The Americanization of the Jews*, edited by Robert M. Seltzer and Norman J. Cohen, 355-374. New York: NYU Press, 1995.

논문투고일: 2025년 07월 14일

심사개시일: 2025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5년 08월 11일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은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Abraham Joshua Heschel)의 인간 이해를 ‘존재 위의 삶’이라는 해석적 틀을 통해 재조명한다. 기존 연구들이 헤셸을 실천 중심의 윤리 사상가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가운데, 본 논문은 그의 인간론이 실천에 앞서 존재론적 구조 위에 놓여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존재 위의 삶’은 인간을 정태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타자의 요청에 응답함으로써 존재를 구성하는 관계적·응답적 존재로 이해한다. 이러한 응답 가능성의 근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고통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파토스’ 개념에 있다. 이 파토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 있는 관심이며, 인간 존재는 바로 그 신적 호소에 응답함으로써 실현된다. 이 과정은 헤셸이 말하는 ‘전이적 관심’—즉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살아 있는 응답의 흐름—을 통해 구체화된다. 헤셸의 사상은 실천과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실천을 존재의 표현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실천적 논의를 존재론적 기반 위에서 재정립하고자 하며, 신학적 윤리의 구조를 관계, 응답, 책임이라는 실존적 범주 속에서 새롭게 구성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아브라함 요슈아 헤셸, 존재 위의 삶, 기독교 사회윤리, 관계적 존재, 전이적 관심, 하나님의 파토스

---